

7월9일

[USD/KRW]

USD/KRW 예상 : 1378~1388원  
NDF 증가 : 1381.30 (Swap point : -2.55, 1383.85원)

- (금일 전망) 금일 달러/원 환율은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둔 관망세 속 상승할 전망이다. 주요 이벤트 및 경제 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파월 Fed 의장의 의회 연설을 앞둔 경계감이 달러를 지지. 시장 내 관망심리가 유입되며 환율은 수급에 따른 등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,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상승 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. 한편, 뉴욕증시에서의 기술주 강세 영향 속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가능성 등은 상단을 제한할 요인임. 이에 환율은 소폭 상승 및 1380원대 중반 등락 예상
- (전일 동향) 8일 달러/원 환율은 미 고용지표 둔화로 인한 달러 약세 반영하며 4.2원 내린 1376.1원 출발 후, 수급상 결제수요 영향으로 3.0원 상승한 1383.3원 증가 기록(15:30). 달러 반등에 따른 상승 압력 속 전장 대비 2.8원 오른 1383.1원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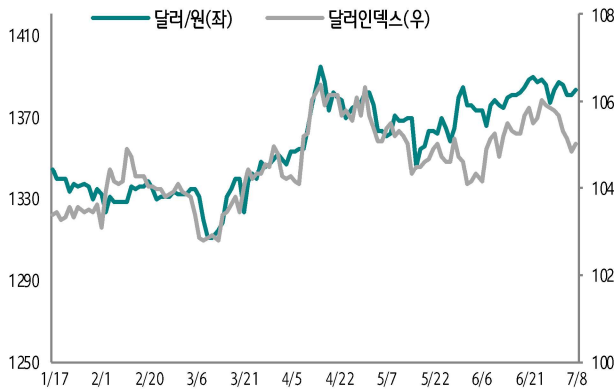
달러/원 환율 상승 요인

-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전 경계감과 달러의 지지력
- 수급상 결제수요 등 매수 우위

달러/원 환율 하락 요인

-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 가능성

KRW, USD Index



자료: 인포맥스

[Global Market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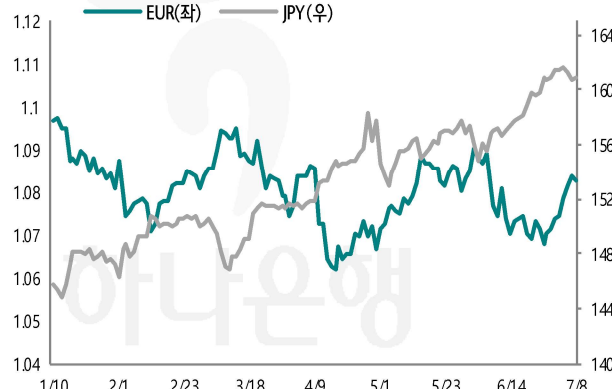
EUR/USD 예상 : 1.0774~1.0864  
USD/JPY 예상 : 106.39~107.29

- (USD Index) 글로벌 금융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반기 의회 보고와 물가지표 발표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유입됨. 이에 달러인덱스는 0.14 상승한 105.02를 기록
- (EUR) 유로화는 프랑스 총선 결과를 소화하는 가운데 매파 성향의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9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점이 반영되며 약세. 유로/달러 환율은 0.0015달러 내린 1.0824 달러로 마감
- (JPY) 엔화는 일본 근로자들의 5월 평균 기본급이 31년 만에 가장 빠르게 상승했음에도 실질임금은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측면이 확인되며 약세. 달러/엔 환율은 0.04엔 상승한 106.79엔으로 마감

글로벌 통화 동향

구분	증가(전일비)	재정환율(KRW)
USD Index	105.02 (+0.14)	
EUR/USD	1.0824 (-0.0015)	1497.32 (+1.22)
USD/JPY	106.79 (+0.04)	860.29 (+1.64)
USD/CNH	7.2856 (-0.0020)	189.86 (+0.50)

EUR, JPY



자료: 인포맥스

[Macro Analysis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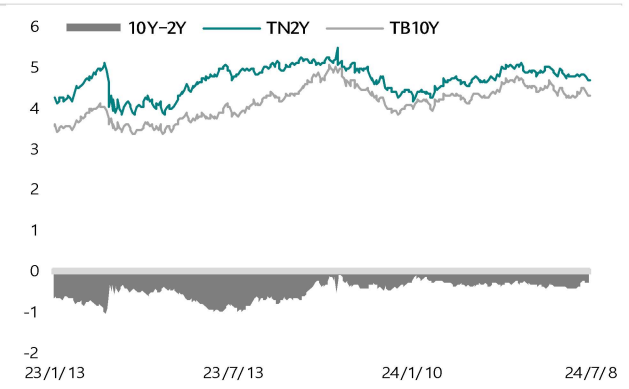
미국채 장단기 Spread(10Y-2Y) : -34.90bp (전일대비 -1.90)

- 글로벌 경제는 파월 Fed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. 미국 6월 컨퍼런스보드 고용추세지수(ETI)는 110.27을 기록하며 이전치 111.04 대비 하락. 뉴욕 연준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.0%,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.8%로 각각 전월의 3.2%, 3.0% 대비 0.2%p 하락. 3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보다 0.1%p 상승한 2.9% 기록. 미 국채수익률은 주요 이벤트 부재 속 방향성 제한된 가운데 2년물 1.70bp 상승한 4.631%, 10년물 0.20bp 하락한 4.282%를 기록. 뉴욕증시는 반도체 관련주 강세에도 파월 의장 연설 앞둔 경계감 유입되며 다우지수 -0.08%, S&P +0.10%, 나스닥 +0.28%로 혼조세 속 마감.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동 휴전협상 기대감에 하락

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

시간	내용	예상	이전
21:55	미국 존슨레드북 소매판매지수(YoY)		5.8%
23:00	파월 연준의장 의회증언		

US Treasury Market



자료: 인포맥스

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,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파월 Fed 의장의 연설 대기, 환율 소폭 상승 전망